



‘평가원 표’ 기출 문제들은 언어 학습의 시작이며 끝이다.

[35~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알겠습니다. 이 일은 사모님, 부사장님, 저만 아는 비밀로 백삼십에 사건을 무마하도록, 실수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는 뭐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사모님이시다보니 신중을 기하느라고 조심할 뿐, 이 정도야 간단히 처리할 수 있죠. 저쪽이 훨씬 약하니까요. 그 처지에 돈 보고 환장 안 하게 됐습니까.”

“사무장도 말 좀 골라 뵈으시오. 같은 말이라도, 환장이 뭐요? 물론 우리 집안 명예와 어머니 명예도 중요하지만, 사무장도 이걸 명심하시오. 운전수네 가족에게 최대한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점 말입니다. 운전수 쪽 가족 생각이, 이번 일은 돈에 시우 군이 팔린 게 아니라 주인아주머니의 어쩔 수 없는 입장을 운전수 된 도리로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뿐이다. 그러다 보니 그 성의 표시로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기게 되어 은혜를 갚는 느낌이다. 운전수와 가족이 이런 생각을 갖게끔 사무장이 처신해야 된다 말입니다. 돈이란 쓰기 나름이라 잘못 쓰면 오히려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욕까지 먹게 돼요. 운전수 가족에게 최대한 성의를 표하고 그들이 그 성의를 진실로 받아들이게끔 행동하란 말이에요.”

이 선생은 젊은 부사장의 설교조 말을 건성으로 들었다.

(중략)

이 선생이 누누이 들려준 말처럼 시우는 아무리 사태가 불리하다 하더라도 1년 미만 징역에 2년 집행 유예로 나갈 줄 알았다. 그런데 이 선생이 올린 항소가 고법에서 기각되고 형이 확정되자, 자기만 억울하게 함정에 빠진 듯했고, 사모님은 물론 가족마저도 돈에 눈이 어두워 자기를 속임수에 이용하는 듯하여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중우 형 면회가 있고부터 그는 한결 새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시우야, 일백삼십에서 또 오십만 원을 더 받았어. 네가 실형을 받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일백팔십이 된 거야. 네가 우리 가족을 살린 거란 말이야. 그 돈이면 나두 공사관을 그만두고 장사를 시작할 수 있어. 너도 야간이라도 학교엘 나갈 수 있게 됐구. 참아 줘. 이걸 정말 면목이 없다면, 어떡허니. 그럴 수밖에 없잖니? 그저께 사모님을 만나 같이 네 얘길 했더랬어. 전생애 다시 갚지 못할 빚을 네게 졌다면 말이야. 네가 출감하면 운전수든 뭐든 다시 일을 시키겠다고, 월급을 올려 주겠다고 약속했어. 시우야, 이 형이 양심을 팔았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 돈으로 우리두 성공하여 옛말하구 살자꾸나. 정말 성공하여 남부럽잖게 될 때, 이 피눈물 나는 고생은 그때 가서 위로하자…….”

멀찌감치 선 간수 귀를 피해 귀엣말로 중우 형이 이렇게 말할 때, 두 형제는 함께 울었다. 시우는 검게 탄 형의 거친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았다. 철창 사이로 굳게 잡은 형의 억센 손이 떨리고 끝내 꺼억거리며 흐느낄 때, ③시우는 여지껏 침묵한 채 참아 왔듯 몇 달을 참기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몇 달 감옥 생활을 이겨 내기로 결심했다.



오늘 아침, 너 달 동안 ㉠집 안방과 다름 바 없는 안착지로 떠나게 되자 까닭 없이 마음이 설레 아침밥도 거르게 되고, 그게 공복과 더불어 한기를 가중시켰다. 시우는 연방 떨며 다시 증얼거렸다. 정말 겨울은 지금부터이고 고생도 시작인데 몸과 마음이 이렇게 약해지면 안 된다고.

“눈이 오면 날씨가 포근한 뱀인디 워찌 요렇게 차다냐. 이런 날은 개팔자가 젤이여.”
“글쎄 말이다. 동지도 그름이모 열매 안 있어 새해 아닌가 말이다. 그라모 햇수로 일년 넘기는 긴데, 해해. 그렇게 햇수로 따져서 내보내 준다 카모 난도 출감이 가까운 데 말이다.”

도란도란 입김으로 나누는 말소리가 시우 귀에 다습다. 몇 명이 같은 감방에 있게 될는지, 아니면 빨뿔이 흩어져 수감될는지 모를 ㉡다정한 얼굴을 시우는 눈여겨보았다. 강도. 절도. 사기. 살인, 각각 이마뺨에 눈에 띄지 않는 ㉢뿔말을 붙이고 그들은 겨울잠을 즐기는 두더지 꼴로 엉겨 있었다.

“젊은 친구, 이쪽으로 와. 거긴 더 추울걸.”

개팔자를 이야기한 죄수가 떨어져 앉은 시우에게 말을 던졌다. 구레나룻 시켜면 그는 토지 사기범이었다.

시우는 빙긋 웃어 보이곤 다시 쇠창살 밖으로 눈을 주었다. 버즘나무 가지에 매달린 고깔 열매가 눈을 맞고 있었다. 시우는 ㉣산타클로스 모자가 생각났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 오고 있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가족이 쌀밥에 고기반찬을 먹겠거니 여겨졌다. 그리고 형은 지금쯤 눈을 맞으며 저 어디 화곡동이나 봉천동 신흥 주택 지대를 싸돌며 식품점 벌일 점포를 물색하고 다닐 터였다. 그렇게만 되면 을숙이도 내년이면 ㉤맞춤 중학 교복을 입고 뿔낼 터였다.

시우 마음은 어둡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 과자며 음료수, 채소, 과일, 각종 일용품이 진열된 상점이 떠올랐다. 점포 이름은 고향 이름 그대로 백암 상회라 붙이겠다고 형이 말했다.

철창을 올려다보던 시우가 갑자기 말 울음소리로 웃었다. 그 묘한 웃음소리를 듣고 동료 죄수들 눈이 그에게 쏠렸다. 개팔자를 이야기한 죄수가 시우를 보며 시큰둥 한마디 했다.

“저건 웃는 게 아니구먼. 웃음도 여러 질이여. 저 상판 봐여.”

— 김원일, 「잠시 눕는 풀」



38.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김원일의 초기 소설은 부조리한 현실의 폭력성을 주로 다루고 있다. 특히 권력에 의한 사건 조작 모티프는 약자의 삶에 고통을 가중하는 현실을 드러낸다. 위 작품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립 구도 아래, 가진 자의 음모를 보여 주는 한편, 악의적 세계에 짓눌린 사람들의 실존을 그리고 있다. 작가는 급박한 생존의 현실을 감내하려는 인물을 통해 부조리한 상황을 부각하였다.

- ① ‘말 울음소리’ 같은 웃음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담아내고 있군.
- ② ‘백암 상회’는 주인공으로 하여금 굴욕적인 현실을 견디게 해 주는 힘으로 볼 수 있겠어.
- ③ 사건 조작 모티프의 설정은 작가가 당대 사회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④ ‘사모님’이 약속한 배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돈으로 사람을 거래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았어.
- ⑤ 면회소와 신흥 주택 지대의 공간적 대립은 가진 자의 악의적 세계와 그에 짓눌린 사람들의 상황을 보여 주기 위한 구도라고 할 수 있겠군.



■ **해설** ■ 편하게 공부하려면 자에게 해설지는 '독(毒)'이다. 곁 속에서 최선을 다한 자에게만 '약(藥)'이 된다.

현대소설 - 김원일, 잠시 놓는 풀

- “이 일은 사모님, 부사장님, 저만 아는 비밀로 백삼십에 사건을 무마하도록, 실수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그 처지에 돈 보고 환장 안 하게 됐습니까.”
- “사무장도 이걸 명심하십시오. 운전수 쪽 가족 생각이, 이번 일은 돈에 시우 군이 팔린 게 아니라 주인아주머니의 어쩔 수 없는 입장을 운전수 된 도리로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뿐이다. 그러다 보니 그 성의 표시로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기게 되어 은혜를 갚는 느낌이다. 운전수와 가족이 이런 생각을 갖게끔 사무장이 처신 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 전쟁은 젊은 부사장의 설교조 말을 건성으로 들었다.

⇒ **사모님을 대신하여 곤경에 처한 시우**
사모, 부사장은 돈으로 무마하려 함

(중략)

- 시우는 자기만 억울하게 함정에 빠진 듯했고, 사모님은 물론 가족마저도 돈에 눈이 어두워 자기를 속임수에 이용하는 듯하여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종우 형 면회가 있고부터 그는 한결 새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 “시우야, 일백삼십에서 또 오십만 원을 더 받았어. 내가 우리 가족을 살린 거란 말이야. 이 형이 양심을 팔았는지 어렸는지 모르지만, 그 돈으루 우리두 성공하여 옛 말하구 살자꾸나.” 두 형제는 함께 울었다. 시우는 여지껏 침묵한 채 참아 왔듯 몇 달을 참기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몇 달 감옥 생활을 이겨 내기로 결심했다.

⇒ **사모와 가족에 대한 시우의 배신감(억울함)**
but, 형 면회 이후 새 희망을 가짐(가족을 위해)

- 오늘 아침, 집 안방과 다를 바 없는 안착지로 떠나게 되자 까닭 없이 마음이 설레 아침밥도 거르게 되고, 그제 공복과 더불어 한기를 가증시켰다. 시우는 연방 떨며 다시 중얼거렸다. 정말 겨울은 지금부터이고 고생도 시작인데 몸과 마음이 이렇게 약해지면 안 된다고.
- 이번 크리스마스는 가족이 쌀밥에 고기반찬을 먹겠거니 여겨졌다. 그리고 형은 식품점 벌일 점포를 물색하고 다닐 터였다. 을숙이도 내년이면 맞춤 중학 교복을 입고 뽀낼 터였다.
- 시우 마음은 어둡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 상점이 떠올랐다. 점포 이름은 고향 이름 그대로 백암 상회라 붙이겠다고 형이 말했다.

⇒ **가족의 행복이라는 희망 때문에 마음이 어둡지 않은 시우**

- 철창을 올려다보던 시우가 갑자기 말 울음소리로 웃었다. “저건 웃는 게 아니구먼. 웃음도 여러 질이여. 저 상관 봐여.”

⇒ **시우의 기묘한 웃음(억울함, 희망 등이 뒤섞인 웃음)**

[주제] 가난한 자의 서러운 처지

[전체 줄거리] 시우네 가족은 백암리에서 이런 저런 날품을 팔아 근근히 생계를 꾸려 나가던 중에 형 종우의 제안으로 서울로 올라오게 된다. 도시 빈민으로 힘겹게 살아가던 어느 날 시우는 우연히 김 여사를 만나 김 여사의 덕의 청소부로 일하면서 운전기술을 배우게 되고, 김 여사의 운전기사가 된다. 그에게 있어서 김 여사는 은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여사는 음주운전으로 한 행인을 차로 치게 되고, 시우 또한 이로 인해 크게 다친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돈으로 시우를 매수해 사건의 책임을 시우에게



전가고자 한다. 가족들은 잠시 갈등하지만, 결국 시우는 돈 때문에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거짓 자백을 하고 수감된다.

38. ⑤

☞ **유형3** 배경·소재·구절의 의미,기능 파악 (정답률 55% ①25% ②10%)

면회소는 종우와 시우 두 형제가 만나서 함께 울었던 공간이다. 두 형제는 모두 <보기>의 ‘약자’ 또는 ‘짓눌린 사람’ 또는 ‘급박한 생존의 현실을 감내하려는 인물’에 해당된다.

따라서 면회소는 ‘약자의 삶의 고통, 처지, 현실을 드러내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신흥 주택 지대는 형이 점포를 물색하면서 다니는 곳이다. 가난으로 생존이 급박한 시우네 가족에게 신흥 주택 지대는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는 곳이기에 ‘약자들의 소박한 소망을 상징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면회소와 신흥 주택 지대’는 서로 대립되는 공간이라 할 수 없다.

▶ **오답피하기**

① 처한 상황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내면심리도 복잡 미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고 속은 듯해서 죽고 싶다고 생각하다가 다시 가족의 행복을 위해 상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심경의 변화가 있는 것이다.

이때 시우의 ‘말 울음소리 같은 웃음’은 이런 복잡 미묘한 심리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백암 상회’는 가족의 소박한 행복의 기반이다. 이를 위해 시우는 몇 달 감옥살이를 참아 내기로 결심한다.

③ <보기>에서 사건 조작 모티프는 권력(강자, 가진 자)에 의해서 삶의 고통이 가중되는 약자(못 가진 자)의 삶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 했다. 따라서 이 소설은 부사장의 가족을 대신하여 범인으로 조작되어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 시우의 상황을 통해 당대 사회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④ 사모님은 시우가 나오면 취직을 보장하고 월급을 올려줄 것이라 했지만, <보기>의 관점, 즉 ‘가진 자들의 음모와 악의’라는 관점에 본다면 결국 돈으로 사람을 거래한 행위라 할 수 있다.

▶ **찬희 Point! 문학은 개연성 있는 해석을 허용하다. 그러나 정답은 명백하다.**

① ‘말 울음소리 같은 웃음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담아내고 있다.’가 왜 적절하냐고?

네 심장에 더운 피가 흐르냐? 혹 자동차 부동액 넣고 다니는 기계 인간 아니냐? 입장 바꿔서 네가 그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라.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감옥살이를 선택해야 했을 때, 심경이 복잡하겠냐 안 복잡하겠냐?

그런 상황이라면 대개의 사람들이 복잡한 심경에 처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의 ‘말 울음 소리 같은 웃음’은 복잡한 심경을 담아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최고의 학습 교재는 수능과 평가원모의고사 기출 문제이다. 대한민국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학습 교재는 없다. ‘평가원 표’ 기출 문제들은 언어 학습의 시작이면서 끝이다.



※ 이 자료는 전개년도 수능 기출 ·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서, ‘마르고 닳도록’ (이찬희 쌤)의 일부 내용입니다.

※ [네이버 카페] 찬희와 함께 춤을 <http://cafe.naver.com/hibabykissme>